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 김기봉 미트박스 대표 도상현 위비스 대표

대구 생각하면 '울컥' 마음으로 전한 사랑

출향 기업인, 출연 이어져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
성금 4억기탁 "위기극복 응원"

김기봉 미트박스 대표
삼겹살 1천박스 "고통분담 당연"

도상현 위비스 대표
상생기금 20억 "추가 지원 검토"

대구출신 기업인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고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대표는 지난 3일 성금 4억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회사 차원의 3억 원에 사재 1억 원까지 보냈다. 전달된 성금은 대구 내 저소득 계층의 방역물품 구입과 의료 지원에 사용된다.

박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대구 지역과 피해 극복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탁을 결심했다"며 "대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미트박스는 대구·경북 지역 외식 사업자들을 위해 행사를 진행한다.

미트박스 4일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 외식사업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삼겹살 3kg를 3000원에 판매한다.

무료배송으로 판매하는 이번 행사를 위해 미트박스는 삼겹살 1000박스를 준비했다. 미트박스의 행사 상품은 원가 2만3400원의 독일산 세절 삼겹살이다.

이번 행사는 미트박스에 가입한 대구·경북 사업자는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선물이 가능

하다.

김기봉 미트박스 대표는 "많은 이커머스에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택배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들 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구와 경북 외식 사업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션기업 ㈜위비스는 대리점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생기금' 20억을 조성하고 무이자 지원키로 했다. 가두매장당 500만 원을, 전문경영인 매장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 안정 및 매출이 회복된 후 분할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수익 악화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마스크/양말 등 사은품뿐만 아니라 쇼핑백 등 소모품도 100% 무상지원한다.

위비스는 브랜드 '지센', '지스바이', '볼빅 골프웨어', '컬처콜', '플라잉타이거 코펜하겐'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장 수는 총 420개가 넘는 규모다. 이미 마스크 3만 장을 특별 지원하는 등 위기 발생에 즉각 대응하여 매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왔다.

위기가 지속적으로 확산하자 본사 수익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고통을 분담코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매장 점주들은 적극적이고 발 빠른 지원으로 매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 준 본사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더 큰 매출로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도상현 위비스 대표이사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의료매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 점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추후 매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LG, 최대 660명 규모 기숙사 제공

경북·울진에 생활치료센터 활용

LG그룹도 코로나19환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를 내놓는다. LG는 4일 경북 구미 LG디스플레이 기숙사와 울진 LG생활연수원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기숙사는 경북 구미시 2공단에 위치하며, 연면적 2만5000㎡에 원룸 형태 267실과 아파트 형태 116실을 갖추고 있다. 최대 499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울진 LG생활연수원은 임직원을 위한 휴양시설로 사용돼왔다. 연면적 2만2000여㎡에 독립 객실 167개를 두고 있다.

이들 시설은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비교적 경증환자들을 격리하고 의료진 관리를 할 수 있는 치료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LG는 이들 시설이 병상 부족으로 확진자를 집에서 대기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완화해주고, 확진자에 빠르고 효율적인 진료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최전선' 대구·경북에 자금 1.5조 투입

코로나19 추경 11.7조

지역경제 회복 위해 8000억 배정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에 1000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풀어 극복을 돕는다.

지역 고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1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 늘려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이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과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총 11조7000억원, 세출 기준 8조5000억원 추경 가운데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을 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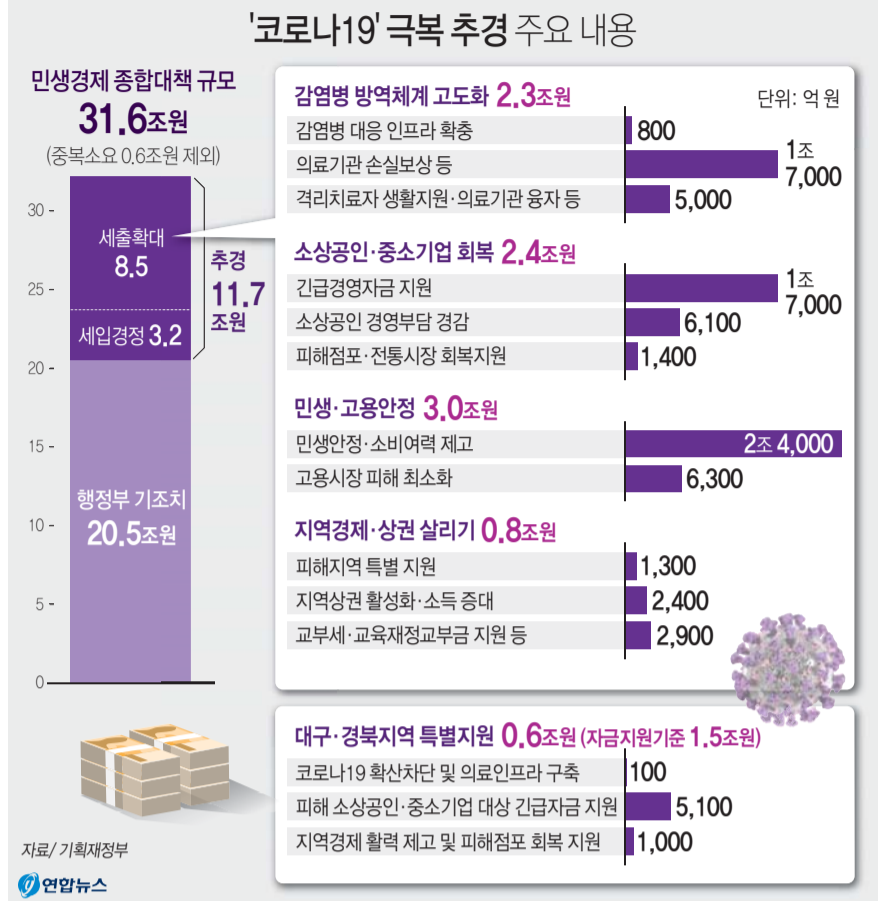
피해 지역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200억원씩 40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6000억원은 공모를 받아 12개 지역에 500억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맞춤형 바우처 등을 지원하며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318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배정했다.

R&D에 50개사 96억원, 바우처에 340개사 102억원, 지역특화기업 육성에 4개 프로젝트 120억원이 각각 쓰인다.

정부는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00897억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조기에 정산한다. 이 자금은



초등학교 체온계·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쪼그라들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발행 국고 지원율을 4%에서 8%로 늘리기 위해 20004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과 같은 대규모 지자체에서는 발행하지 않아 소비증대 효과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전통시장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해 690억원의 예산을 투

입해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한다. 1인 구매 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바우처를 위해 212억원을 배정해 531개 시장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 중 특별히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투입되는 액수는 총 6000209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5000억원 수준의 자금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5000139억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통해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대구·경북 지역에 풀린다. 긴급경영자금(4000600억원), 특별보증(9000억원), 매출채권보험(4000억원)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와 피해점포 회복 지원 등에 1000100억원을 추경으로 투입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식음료업계, 코로나19 극복 지원 릴레이

대상·야쿠르트·농심·오비맥주 김치·컵쌀국수 등 간편식 기탁 마스크 등 방역물품·성금 전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과 취약계층에 식음료업계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상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증가 집 김치와 컵쌀국수 등 1억 1000만 원 상당의 간편식 제품 5만 개를 기부했다. 기부된 물품은 대구 지역 자가 격리자와 의료지원인력들에게 전달됐다.

한국야쿠르트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금 3억원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방역물품 구매, 긴급 구호물품 지원 등 지역사회 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야쿠르트는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둔 기업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별관에서 열린 구호물품 전달식에서 박인수 오비맥주 경북권역 전무(오른쪽)와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비맥주

말했다.

농심은 무료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및 취약계층을 위해 쌀국수 6000박스를 지원한다. 농심이 기부하는 쌀국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울지역 결식 어르신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폐쇄로 기본적인 식사조차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며 "특히, 쌀로만 만들고 기름에 튀기지 않아 소화에 부담 없는 쌀국수 제품을 지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구호 성금과 마스크, 손소독제를 기탁했다. 마스크, 손소독제는 최전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방역요원 등에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비맥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주류도매사를 돕기 위해 주류구매대금 상환 기일 연장 등 대규모 지원책도 시행한다. /김민지 기자 kmj@